



서울  
12℃~22℃ 흐리고 비 뒤 갸  
인천  
12℃~20℃ 흐리고 비 뒤 갸

## 이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때 미 쇠고기 수입중단” 한-미 합의 뒤집어 통상마찰 우려

### USTR 대표, 재협상 가능성 강력 부인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뒤집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방침이 재협상을 통한 ‘검역조각’ 확보 등 근본적 해결책 대신 실효성 없는 정치 선언으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3·4·5·8면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전북도청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과 충돌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확신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운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개방 청문회’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동석 농

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정부의 방침이 미국과 합의한 것과 다르지 않으나”는 의원들의 추궁에,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적 판단에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무역 분쟁을 제소할 수도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달 18일 타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미국 내 자체 역학조사 절차를 거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이런 합의문을 개정하지 않은 채 ‘광우병 발병 때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 시각)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광우병 소의 유무보다는 모든 쇠고기에서 위험이 제거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위험물질만 제거한다면 (안전성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재협상 여지를 강하게 부인했다.

‘광우병 위험·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국민대체회’는 “줄속 타결된 협상문을 그대로 두고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성난 민심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황준범 기자 minerva@hani.co.kr



줄속협상 ‘진담 청문회’ 정운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답하다 안경을 벗고 땀을 닦고 있다. 강형광 기자 chang@hani.co.kr

## 쇠고기협상 직전 ‘원칙→재량권’ 돌변

강기갑 의원, 비밀문건 내용 공개

정부가 지난달 11-18일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소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 ‘등뼈 등 7가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모두 제거’, ‘내장은 전체 수입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기존 방침을 사실상 모두 포기하고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쇠고기 협상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정운천 장관의 결재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이라는 대외비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을 비롯한 쟁점사안 협상 지침을 담고 있으며, 주요 쟁점사안은 장관 훈령으로, 기타 쟁점사안은 민동석 협상수석대표(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주요 쟁점인 월령 제한 문제의 경우, 농식품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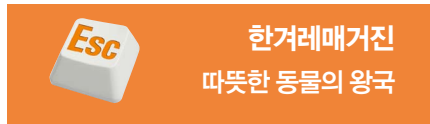
무보고에서 미국 쪽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이행 시점’에 월령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문건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공포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줬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제거 범위와 관련해서도 협상단은 처음부터 ‘7가지 모두 제거’에서 ‘30개월 미만 소는 2가지만 제거’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정부의 방침

“주요쟁점 기존방침 모두 포기  
줄속협상 지시한 주체 밝혀야”

변경을 농식품부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줄속 협상안을 지시한 실제 주체를 찾아내 해임 등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 청와대 비서관 34명 중 21명도 ‘버블세븐’

### 평균 재산 18억원 육박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 부처 1급 고위 공직자 73명의 등록재산 평균액이 17억6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7일 공개한 ‘3월1일 이후 신규 임명자 중 1급 이상 고위직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보면, 공개 대상자 73명의 재산 평균액은 17억6558만3천원이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 34명의 재산 평균액은 17억9677만8천원에 이르렀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97억3155만9천원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자 73명 전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김 부대변인을 빼면 비서관 재산 평균은 15억5632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21명(61.76%)은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평촌·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장녀(24) 명의로 충북 제천의 임야 7547㎡(가액 1335만원)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비서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투기 목적과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개자 73명 가운데 21명(28.8%)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관 34명 가운데 11명(32.4%)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 ‘금융권력’ 대이동 시작

산은·신보·우리금융등 기관장·행장 8명 물갈이  
기은·예보·자산공사·서울보증보험 4명은 재신임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금융공기업 8곳 가운데 4곳의 기관장이 한꺼번에 갈려, ‘금융권력’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측은 네 명의 기관장이 모두 옷을 벗었다. ▶관련기사 5·19면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공기업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상 기관 13곳 가운데 산업은행·우리은행 등 8곳의 기관장이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서울보증보험의 기관장 등 네 명은 재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달 10일께 시작된 금융공기업 기관장 일괄 사표 사태가 한 달 만에 일단락됐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8곳 가운데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등은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철형 캠코 사장

등은 재신임을 받아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공모 중이나 더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재공모를 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금융기업 5곳 가운데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준 우리은행장, 정태석 광주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은 교체됐다.

금융위 측은 재신임 결정의 기준으로 △재임 기간 △경영 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를 주요 기준을 삼았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과 함께,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산하 기관인 수출입은행(양천식 행장), 한국투자공사(홍석주 사장)의 기관장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또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공석이며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20년 한겨레 창간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1988.5.15~	이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	5
		수학여행 버스 전복 43명 사상	9
		불나 물가에 급리인하 기름붓나	19

#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농림수산물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